

일반논문

김용섭 교수의 생애와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사상

조성국(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초록]

김용섭(1929-2021) 교수는 고신대학교의 첫 번째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자였다. 그는 고려신학대학의 첫 번째 교육학 교수로 교육학을 가르쳤고, 네덜란드계 기독교대학교에서 개혁주의 교육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의 한국인 박사였다. 그는 고신대학교에 기독교교육과가 설치된 이후, 전공 교육과 학문연구에서 개혁주의 교육학을 확립하는 과제를 수행하여, 기독교 교육과가 개혁주의 교육학 교육과 연구에 특화된 기관이 되는 일에 기여하였다. 그의 저서 『기독교교육철학』은 우리나라 교육학자가 네덜란드계 개혁주의 관점의 기독교교육철학을 논의한 의미 있는 저서여서, 이후 기독교교육자들에게 개혁주의 교육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용섭 교수는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 기독교철학의 기초에서, 교육학적

인간론, 교육이론, 교육심리, 한국교육역사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는 개혁주의 교육학자인 네덜란드의 바터링크와, 특히 미국의 야르스마의 대표적인 연구자가 되어, 우리나라에 이 학자들의 교육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은 하나님 중심의 규범적 교육학이다. 개혁주의 교육학은 하나님의 권위와 역사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 간주한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교육과정에서 중심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교육은 인간 마음의 변화를 통한 전인적 발달과 성숙을 도모해야 하며, 문화적 사명의 범위와 과제를 다루어, 학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사회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로 그의 기독교교육사상은 요약될 수 있다.

주제어: 김용섭,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교육학, 기독교교육철학, 기독교교육, 개혁교육학, 포츨스트룸대학교

1. 들어가면서

코로나19로 모임이 자제되어 온지 거의 1년 된 2021년 2월 11일, 설날 전날, 김용섭(金龍燮, 1929-2021) 교수는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모두가 조심하는 시기여서, 김 교수의 자녀들은 많은 제자들과 지인들에게 부고 전하는 일을 걱정하였다. 더욱이 명절연휴 기간이어서 조문 오는 일로 부담을 준다고 여겼다. 그래서 부고는 교회 외에는, 막내아들 김승학 장로가 근무하는 고신대학교 교직원들에게 교직원 부친상의 짧은 공지 메일로만 전달되었다. 상주들은 김 교수가 오랜 기간 장로로 섬겨왔던 역사 깊은 교회에서, 규례에 따른 교회장도 축소하여 가족장으로, 조용한 장례의식을 진행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고신대학교가 고려신학교에서 고신대학으로 확립되던 시기에 교육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첫 번째의 교직과목 교수로 시작하여 기독교 교육과 설립과 발전의 역사에서 주요한 개척자 역할을 했다. 고신대학교가 신학교에서 기독교대학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학행정의 확립에 기여한 바가 컸다. 비슷한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임교수로서 동방박사로 일컬어졌고 총장직을 중임했던 역사적 인물 이근삼, 오병세 교수에 비할 때, 언제나 스스로 한걸음 뒤에 서 있었다. 정년퇴임 시점까지도 학문 활동을 하는 제자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여전히 학과 역사가 짧아, 학과 동료교수들과 제자들이 김용섭 교수의 교육활동과 학문적 기여를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그 일을 미래의 과제로 남겼다!

수년 후 김용섭 교수가 명예교수 역할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필자는 김 교수가 오랫동안 강의하였던 교과목 중에서 기독교교육철학과 성격심리학 강의를 위촉받았다. 김 교수는 필자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여서, 일찍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과 저서들을 선물 받은 일이 있던 차에, 위의 2과목 강의를 위촉받은 후, 김 교수로부터 손 글씨의 성격심리학 강의노트, 기초자료의 논문들, 그리고 교육심리 참고교재 몇 권도 넘겨받았다. 필자는 기독교 교육철학자였으므로 몇 년 후 성격심리학 과목을 상담심리학자에게 넘겨주었고, 김 교수에 이어 기독교교육철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필자는 김 교수에 이어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전공교육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느끼며 보냈다.

김용섭 교수는 고신대학교에서 25년을 근무했고, 정년퇴임 이후 다시 29년을 더 보냈다. 이미 김 교수의 제자들이 정년퇴임하는 나이에 이르렀고, 새

1. 필자는 김용섭 교수가 정년퇴임 할 시점(1994.2.)에 해외 유학 중이었다.

로운 세대는 벌써부터 김 교수를 문헌으로만 만나왔다. 더욱이 코로나19 시대로 모든 집합 행사를 통제받던 시기에 소천 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정년퇴임 때처럼 조용한 마무리를 요구받았다. 조용함은 김 교수의 성품과도 닮았다.

필자는 김용섭 교수가 우리나라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교육과 연구 역사에 대단히 주요한 위치에 있었고, 대단히 비중 있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고 본다. 그의 연구 문헌들에 반영된 기독교교육사상은 우리나라 기독교교육자들에게 20세기 중반 개혁주의 교육 전통의 지식과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후속 기독교교육 연구자들이 김 교수의 학문적 기여와 그 가치를 알고, 그의 문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단서를 만들어두어야 할 과제가 필자에게 남겨져 있다고 판단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다.

2. 김용섭 교수의 생애와 교육활동

김용섭(金龍燮, 1929-2021)은 1929년 2월 19일, 전라북도 전주시 화산읍 148번지에서, 아버지 김경문과 어머니 오현숙의 4남 중 세 번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해방직후인 1945년 9월부터 1948년 7월까지 공립학교인 전주상업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김용섭은 6.25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전북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여 1955년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동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서양철학을 전공하고,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과 종교」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1957년 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과정에서는 서양철학 영역 안에서 '종교'의 본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이 관심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1961년 전원배 교수 환려키념학술연구발표회에서 김용섭은 "종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용섭은 대학원에서 계속 학문연구에 몰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진로를 변경하여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김용섭은 동일 연령의 오덕자와 결혼하여, 종근, 수진, 승학의 2남 1녀를 두었다.

김용섭은 1955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설립하였던 미션스쿨인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에서, 그리고 1957년부터 1966년까지는 역시 미국 남장로교 미션스쿨인 순천매산고등학교에서, 약 11년간 영어와 철학 교사로 일했고, 교무행정을 맡아 일하였다. 그는 영어교사로 일하면서 오랜 기간 영자신문과 미국시사 잡지를 숙독하는 방법으로 영어를 익혔고, 정부의 유학 장학생 지원자 시험에 합격하였다. 1966년 정부 장학금 지원을 받아 미국 텍사스 주의 산 안토니오에 소재한, 미국 남장로교 전통의 트리니티대학교(Trinity University) 대학원에 유학하여 교육심리학을 공부하였다. 1969년 "학습에 있어서 동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² 장학금 지원 기간에 맞추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한 김용섭은 순천매산고등학교에 복귀하여 잠시 동안 일했다.

고등학교 교사에서 대학교 교수로의 진로변경은 1969년에 이루어졌다. 해방직후 한국 장로교회 지도자들 중 일부는 1946년 9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강요로 폐교되었던 평양장로교신학교를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고려신학교를 개교하였다. 고려신학교는 세속정부의 학교통제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 오랫동안 신학교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후 고신교회의 교단 신학교로 확립된 고려신학교는 1968년에야 교육부에 학교법인 인가를 신청하여, 각종학교 지위

2. 1968년 봄, "The Role of Motivation in Learning"("학습에서의 동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트리니티대학교 교육학술지(Educational Journal)에 발표하였다.

를 인정받았다. 고려신학교는 1969년 대학학력인정 수준에서 대학승인 조건을 갖추어가면서 교직과 교양 교과 교수를 모집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일찍이 철학과에서 종교(기독교)를 연구하였고, 미국 남장로교 미션스쿨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으며, 미국에서는 남장로교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신학교 중 하나인 고려신학교가 교육학 교수를 모집하자 소명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고려신학교 임용이 결정되자 부산에 이주하여 학교와 교회에 가까운 영도에 정착하였고, 줄곧 영도에서 살았다.

1969년부터 1976년까지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 시기에 김용섭 교수는 신학과 교수로서 교육학 교직과목과, 교양교과인 영어, 독일어, 철학을 강의하였다. 그는 신학과 외의 첫 번째 학과인 기독교교육과 신설을 주도하였다. 1977년 기독교교육과 신설과 더불어 기독교교육과의 첫 번째 교수로서, 신생 학과인 기독교교육과의 전공교육과정과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토대를 확립하는 선구적인 일을 수행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기독교교육과 전공교육에서 교육심리 영역을 맡아 교육심리학과 성격심리학을 가르쳤고, 사범학과 전공교직인 중등학교 윤리교과와 교생실습을 지도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1978년, 49세의 많이 늦은 나이에, 교수 박사학위취득 지원 연구년을 허락받아 남아공화국 네덜란드계 포츨스트룸대학교(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elike Hoër Onderwys) 대학원 박사과정에 유학하였다. 그는 교육철학 전공에서 1981년 「한국에서의 교육에 대한 성경적 접근 개관」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³ 김용섭 교수는 포츨스트룸

3. 김용섭 교수는 남아공화국 포츨스트룸대학교(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elike Hoër Onderwys)의 첫 번째 한국인 유학생이면서 첫 번째 한국인 박사학위 취득자였다. 우리나라와 남아공화국 양국 간 국교체결 이전이었으므로, 그의 유학은 남아공화국 현지 미디어에 소개되었고, 김용섭 교

대학교 대학원의 첫 번째 한국인 유학생이었으므로, 포츨스트룸대학교 교육학대학 교수들은 한국교육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고, 김용섭 교수는 네덜란드 개혁주의 기독교대학에서 발전시켜온 성경적인 접근의 기독교교육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김용섭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의 교육역사와 상황에서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깊이 논의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포츨스트룸대학교의 첫 번째 한국인 박사학위 취득자가 되었고, 이후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전공교육에서 기독교교육철학 교과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김용섭 교수는 고려신학교에서 고등학교 교무행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교수였다. 오랫동안 교회행정에 익숙한 신학교에서, 대학으로 인가받은 후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대학교육행정에 적응해가야 했던 고려신학대학은, 학교행정 전반에서 그의 실제적인 기여를 필요로 했다. 김용섭 교수는 고신대학교에서, 대학행정의 기초에 해당하는 학생처장직과 교무처장직을 감당하였다. 처음에는 학생처장직으로, 특히 오랫동안 교무처장직을 역임하였고, 나중에는 대학원장직을 수행하였다. 교회에 익숙한 신학 교수들이 중심이었던 신학대학교로부터 기독교대학교로 확립되는 과정에, 그는 주요한 실무 지도적 행정이 역할을 직접 해야만 했다.

김용섭 교수는 고려신학교의 발전과 학교명칭 변화에 따라, 고려신학교의

수는 인터뷰를 통해 남아공화국 시민들에게 한국을 소개하였다. 포츨스트룸대학교는 남아공화국의 네덜란드계 개혁교회 신학 및 기독교 대학교이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와 동일한 지위와 특성을 가진 기독교대학교였다. 포츨스트룸대학교는 고신대학교와 동일한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신대학교 교수(후보자)들의 대학원 유학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한국유학생들이 신학과 교육학을 공부한 후 교수가 되었다. 김용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 다음과 같다. "Contours of a Scriptural Approach to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d.D. Thesis, 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elike Hoër Onderwys, 1980).

조교수(1969.9-1970), 고려신학대학의 조교수(1971-1975), 고신대학 부교수(1975-1983), 고신대학교 교수(1983-1994)로 일하였다. 고신대학교에서 정년 퇴임(1994.2) 때까지 25년 동안 일했고, 이후에는 명예교수로 수년간 강의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정년퇴임 시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에서 수행한 약 38년의 교육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김용섭 교수는 교회장로였으므로, 고신교단의 목사들이 주도하는 교회교육에 기여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해양선교와, 특히 해외선교사들의 통역사가 되어, 교회에서 설교를 통역하고 국내선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선교사역에 봉사하였다. 그는 부산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설립하였고, 고신교회의 중심 위치에 있어 온 제일영도교회에서, 1977년 장로로 임직하여 1999년 은퇴할 때까지, 22년 5개월 동안 장로로 봉사하였고, 이후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김용섭 교수는 1997년, 교회 100주년 역사책인 『제일영도교회 100년사: 1896-1996』를 집필하여 출간하였다. 이 책은 한 교회의 역사책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교회와 부산교회, 고신교회의 역사를 개관한 역작으로, 특히 개별교회 역사서술의 역작으로 인정받았다. 김용섭 교수는 그의 만 92세 되는 2021년 2월 11일, 구정 전날, 평안하게 소천하였다.

3. 김용섭 교수의 기독교교육사상

김용섭 교수의 연구범위는 대학원의 학문 전공이력에 따라 분야와 방법이 확장되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교육사상으로 수렴해왔다. 서양철학 전공에서는 처음 칸트철학의 윤리와 종교, 종교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관심을 가졌다. 고신대학교에서 학문 활동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종교인 개신교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개혁주의(칼빈주의) 철학과 신학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기독교교육철학자로서 그는 인간과 인간형성 이론인 교육이론에서, 주로 인간의 종교적 본질과 계시의 규범에 따른 교육사상을 정교화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기독교교육학을 탐구하는 학자로서, 한국교육역사, 근대 미션스쿨의 역사, 그리고 신앙교육공동체인 교회역사 서술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김용섭을 교육학자로 만든 것은 11년의 교사경력에 이어 미국 유학 중 교육심리학을 전공으로 공부한 이력이었다. 사회과학으로서 교육심리학은, 인간의 현재 경험적 행동과 특성, 그리고 그것들의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영역이므로, 성장발달 과정 중에 있는 인간과 그의 정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론에 관심을 둔다. 김용섭 교수는 교육심리학 연구 활동에서, 전통적 주제인 동기(motivation), 그리고 대학생들의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방법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고신대학교에서 그는 주로 철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인간의 심리학적 '인성(personality)'과 교수학습의 '이론'을 논의하는 이론적 연구물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육심리학을 구축하는 대안을 제안하는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연구사의 흐름에서, 김용섭 교수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별로 기독교교육사상의 내용을 서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1. 신학과 기독교철학에서의 개혁주의 인간론

김용섭 교수는 기독교교육이론의 기초를 칼빈주의(개혁주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두었다. 기독교교육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에서 그는, 우리나라

에서는 대단히 이른 시점인 1985년에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⁴ 세계관을 기독교철학에서처럼 카테고리에 따라 혹은 철학의 범주에 따라 구조적으로 논하지는 않았고, 신학적 칼빈주의와 동일시하였으므로 미터(Henry Meeter), 맥닐(John McNeil)의 개혁신학 문헌들을 기초로 논의하였다. 그에 게 기독교 세계관은 칼빈 신학에 따라, 하나님 중심, 주권, 영광에 주목하는 신학적 관점을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시키려는 시도로서, 개혁주의와 동일한 의미였다.⁵

기독교세계관에서 가장 주요한 관심은 주권자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에 두어졌다. 김용섭 교수의 세계관 논의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실재로서, "영원 자존하시고, 삼위이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본질로 실존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다."⁶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로서, 모든 실재하는 것들의 존재적 근거이다.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그의 논의는 이후 기독교철학자들인 도예베르트(H. Dooyeweerd), 스피르(J. M. Spier), 딸야르트(J. A. L. Taljaard)의 문헌들로 확장되었지만, 기독교세계관 주제들의 철학적 논의에는 소극적이어서 아주 제한되었다.

김용섭 교수가 칼빈주의(개혁주의)에서 집중된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인간관이었다. 교육학의 주된 관심이 인간 형성이므로, 인간관이 핵심 주제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인간에 대한 신학적 논의에서 김용섭 교수가 처음으로 삼았던 것은 칼빈의 인간론이었다. 김용섭 교수가 이해한 칼빈의 인간론에 따르면, 인간은 하늘의 영혼과 땅의 육체로 구성된 이원론적 존재, 하나

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동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님 형상의 잔영이 남아있는 존재였다. 자유의지에 따른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원죄의 영향으로 반역적 방향을 지향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영적 지혜를 얻고, 중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지는 바른 방향으로 문화창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⁷

김용섭 교수가 기독교철학적 인간관의 기초로 삼았던 것은 도예베르트의 인간론이었다. 도예베르트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는 종교적 중심이면서 존재의 중심인 마음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몸의 구조는 양상이론의 기초에서, 생리-화학적 자질, 생명적 자질, 심리적 기능, 그리고 결의적 기능이 통전적으로 결합된 전인적 인간이다. 인간은 중심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앎, 상상, 열망의 방식으로 몸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하여 규범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⁸ 김용섭 교수는 칼빈의 신학적 인간론과 도예베르트의 기독교철학적 인간론의 기반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인간의 주요 특성은 종교적 존재, 합리적 존재, 도덕적 존재, 사회적 존재, 자유로운 존재,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정리하였다.⁹

김용섭 교수는 기독교교육학자로서, 칼빈의 신학적 인간론의 배경에서 기독교교육학적 인간관을 더 구체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기독교교육철학은 기독교교육학적 인간관의 기초적 논의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4. 김용섭,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교육목적, 교사-학생관을 중심으로," 『고신대학 논문집』 13(1985.7): 69-93; 이 논문은 이후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발간되었다(1992).

5. 김용섭.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5.

6. 김용섭.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6.

7. YongSub, Kim. "Contours of a Scriptural Approach to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294-308.

8. YongSub, Kim, "Contours of a Scriptural Approach to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311-312.

9. YongSub, Kim, "Contours of a Scriptural Approach to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319-330.

이러한 과제 수행 필요에 기초적인 자료가 된 것은 미국 칼빈대학교 교육학 교수였던 야르스마(C. Jaarsma)의 문헌들이었다. 야르스마는 네덜란드의 바빙크(H. Bavinck)와 바터링크(J. Waterink)의 개혁교육학을 미국 교육심리학과 통합한 모델을 보여주었던 기독교교육학자였다. 김용섭 교수는 야르스마의 교육이론모델을, 우리나라의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확립과 발전을 위해 논의해야만 할, 가장 의미 있는 모델로 확신했다.

김용섭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야르스마의 대표적 연구자였다. 이미 그의 박사논문(1980)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 야르스마의 교육이론을 논의하였다. 이후 야르스마의 학습이론(1981), 야르스마의 인간발달론(1985), 야르스마의 기독교교육사상(1993)을 주제로 개별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야르스마는 바빙크의 인간론을 수용하면서도 바빙크와 달리 인간을 삼분설에 따라 영(pneuma), 혼(psyche), 몸(soma)로 구분하였다. 그는 전인적 인간을 인성(personality)으로 표현한 후,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차원으로 구별하여 발달을 논하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영이 부여하는 발달충동으로 설명하였다.¹⁰ 김용섭 교수는 야르스마가 개혁주의 인간관과 심리학을 통합하여 교육학에 맞게, 퍼스날리티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전인적 인간과 교육이론을 서술하는 독창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야르스마를 비판한 것처럼, 영과 발달충동을 동일시한 점을 비판함으로써 철저한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였다.¹¹

인간관에 있어서 김용섭 교수는, 칼빈과 도예베르트와 야르스마의 사상을

10. 조성국, 『기독교세계관 형성을 위한 기독교학교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19), 151, 228-229. 야르스마는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교육철학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정정숙 교수에 의해 1983년 우리말로 번역 출간되었다.

11. 김용섭, “Cornelius Jaarsma의 교육사상,” 『고신대학교 논문집』 (1993.12): 69-70.

개혁주의 인간관의 핵심 기초 자료로 간주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세 사람의 학자들의 인간론을 자신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처음 깊은 영향을 준 것은 칼빈의 인간론이며, 야르스마의 인간론에는 교육이론이해를 근거로 동정적이었다. 칼빈의 이원론과 야르스마의 삼원론도 깊게 논의하지는 않았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섭 교수에게 야르스마의 교육학적 인간론의 영향은 지속적이었는데, 그 흔적 중 하나는 그가 칼빈의 이원론을 다루면서도 야르스마의 삼원론 구조의 표현을 가져와, 영혼(psyche, soul)을 지속적으로 우리말 ‘혼’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용섭 교수의 교육이론에서 도예베르트의 인간론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 이후 더 발전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¹³

3.2.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이론

개혁주의 세계관과 인간관은 필연적으로 일반교육이론과 구별되는 기독교교육이론 구축의 과제를 요구한다. 김용섭 교수는 일반교육이 기독교교육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은 전인적 인간의 형성 활동이므로, 교육관의 토대가 되는 세계관과 인간관이 구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기독교교육의 독특성을, 성경말씀이 교육의 원리와 내용의 원천이라는 것, 교육이 목표하는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성을 목표로한다는 점, 학생의 마음의 변화와 증생과 성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이라고 보았다.¹⁴

12. 김용섭 교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찰스 하지의 문헌을 기초로 이분설과 삼분설을 비평하였고, 바터링크와 야르스마는 통합된 전인적 인간론을 가진 것으로 설명한 일은 있다.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213-234.

13. 김용섭,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8-10.

14. 김용섭, “일반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고

김용섭 교수는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이론의 체계적인 서술과제를 이미 박사학위 논문(1980)에서 개괄적으로 수행하였고,¹⁵ 이후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발전시켜 독립적인 저술로 완성하였다. 그가 집필하여 출간한 『기독교교육철학』(1996)은 개혁주의 신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교육이론을 학문적으로 다룬 전형적 사례의 역작으로서, 개혁주의신학총서로 인정받았고,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중판되었다.¹⁶ 일찍이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되거나, 한국학자가 집필한 기독교교육학 저서들은, 많은 경우 미국의 신정통주의 신학과 진보신학들에 기초한, 혹은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교회교육이론서들임에 비하여, 김용섭 교수의 저서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일반 교육학이론들을 비평하면서 개혁주의 교육학을 적극적으로 서술한 교육학의 이론적 저서였다.

김용섭 교수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일반교육이론(준비설, 개현설, 심의구성설, 형식도야설, 향존주의, 진보주의교육관)과 미국 기독교교육학이론인 종교교육학과와 기독교교육학과 이론들을 개혁주의 교육학 이론(바티링크와 야르스마)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이 일반 교육이론들과 구별되는 특성은 근본적으로 전혀 상반된 인간론과 기본 동인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국 신정통주의 교육신학자 쉘의 사상에 대하여는, 기독교교육이론으로서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인간의 실존주의적 불안의 원천이 되는 죄성(罪性), 타락한 본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마음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쉘이 의도하는 전인격 구조

와 기능의 깊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함으로써 쉘의 사상을 개혁주의의 관점과 구별하였다.¹⁷ 개혁주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정에서, 성과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으로 성숙한 인격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공동체의 복리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 보았다.

김용섭 교수는 교육주체들에 대한 논의에서, 개혁주의 관점에 따라 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의 본질과 상호관계의 특성을 다루었다. 근대(현대)교육에서는 교사만을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는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기초에서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교육적 사명을 부여받았고, 교육을 위한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보았다. 교사는 부모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학교는 가정으로부터 연장된 권위를 행사한다고 보았다.¹⁸ 기독교 교사는 아동의 영적 발달의 책임을 수행하는, 아동을 잠으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학생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한편으로는 타락한 본성의 비판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정적 특성도 가지고서 전인적 발달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간주된다. 교육의 주체들에 대한 논의에서 김용섭 교수는, 부모와 교사도 위임받은 권위로 교육을 실행하는 자들이며, 학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존재이므로, 교육은 아동중심 혹은 인간중심일 수 없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김용섭 교수가 깊은 관심을 가진 주제는, 자유, 훈계, 권위였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한 독립적인 논문을 철학 학술

신대학 논문집」 15(1987.10.): 268-272.

15. YongSub, Kim, "Contours of a Scriptural Approach to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제5

장(교육의 본질과 목적), 제7장(교사와 학생과 기관), 제8장(교육과정과 교수학습과정).

16.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2000년에 재판 발행됨.

17.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131-134.

18.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247.

19.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265.

지에 기고한 일도 있다.²⁰ 교육 주체들 간에 상호소통 과정인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훈계와 권위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개념들의 함의에는 현대교육과 기독교교육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김용섭 교수는, 교육적 자유란 속박에 대한 무조건적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유는 존재의 본질에 속하고 생존의 양태를 규정하는 제약조건의 속박에 순응할 때 있다는 바터링크의 주장을 수용하였다.²¹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훈계의 주제에서 김용섭 교수는, 학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교육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훈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 따라 학생을 이끌어 학생의 자기 훈계에 이르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용섭 교수는 야르스마의 견해에 기초하여, 훈계를 건설적 훈계, 예방적 훈계, 치유적 훈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²² 훈계는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과 인내에서 우러나와야 정당화된다.

권위는 적극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므로 교육에서 주요한 주제이지만, 현대 일반 교육은 권위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김용섭 교수는 교육을, 하나님의 권위에 기반을 둔, 위엄 있는(authoritative) 형성 활동으로 보았다. 권위는 인간 자존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로부터 파생적이고 대행적인 권위이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규범으로만 정당화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마음에서 발휘되어야 정당화된다고 보았

20. 김용섭,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와 훈계와 권위의 문제," 『향연』 1 (1984), 43-59. 이 학술지는 전북대학교 철학과와 학술잡지였다. 김용섭 교수는 철학 학술지에 기독교교육철학적 논의의 논문을 기고하였다.

21.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272.

22.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284.

다.²³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하였다: "교육이 참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절제와 책임이 앞서는 자유와 그리고 사랑의 동기에 바탕을 둔 훈계와 권위, 이 3자는 언제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필요할 경우에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²⁴

김용섭 교수는 교육적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으로, 가정, 교회, 학교, 정부, 사회를 구별하여 논의하였다. 현대교육이 학교와 정부에 집중된 관심을 보인 것과 달리, 그는 하나님이 제정하여 언약적 유대로 세우신 가정과, 은혜언약의 기초에서 제정하신 교회의 본질적 교육기능을 강조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기독교철학자 딸야르트의 논의에 기초하여, 학교는 가정의 연장선에서 전인적인 발달과 성숙을 위해 세워진 존재론적 개별성을 가진 기관이며, 특별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문화된 기관으로 간주하였다.²⁵ 교육은 국가의 주요 과제이고 국가는 직접 교육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국가는 교육에 있어 전체주의적 통제가 아니라, 교육적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데, 그 이유는 교육 고유의 특성과 기능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육과정론에 있어 김용섭 교수는 야르스마의 연구를 기초로, 현대교육의 정보지식획득 개념, 도야의 개념, 사회적 개념, 창의적 개념과 구별하여, 기독교적 교육과정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서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적 교육과정의 특성은, 전인적인 존재로서 전인적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 특성,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있는 문화적 자원들의 다양성의 특성 위에 세워져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교육과정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온전한 인간 실현을 위해, 마음의 변화와 중생을 기초로 전개되어

23.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295, 297.

24. 김용섭,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와 훈계와 권위의 문제," 58.

25.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332.

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기초 위에서,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과, 초월적, 초현세적 요소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 또한 교과와 주제는 기독교적 문화개념과 문화적 사명의 과제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수학습이론에서 김용섭 교수는, 현대교육이 아동 중심적 경향을 견지하여 교수(teaching)에는 소극적이고 아동의 심리적 본성에 기초한 학습(learning)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점과 구별하여, 교수는 영적 활동이고 하나님의 교육의 중심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 기독교교육학자 리(James Michael Lee)의 종교교수이론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실제적인 논의에서는 개혁주의 교육학자인 야르스마의 제안을 따랐다. 김용섭 교수는 교수를, 학습의 욕구를 환기시켜 목표로 안내하고, 고무하고, 부추겨, 작동하게 하는 기예(art)라고 보았다. 그래서 참된 교수(teaching)는, 학생과의 효과적인 소통, 곧 인격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전제한다고 강조하였다.²⁷ 그리고 교수의 핵심 요인은 훈계이며, 그 훈계는 건설적 훈계, 예방적 훈계, 치유적 훈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학습에 있어서 김용섭 교수는, 현대교육이론들이 교육에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유전과 환경 외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의 원리를 더하였다. 그리고 일반 학습이론들은, 기독교적 인간관과 교육원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야르스마의 주장에 동의하여, 인간의 종교성을 학습이론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습주체, 학습목표, 학습매체의 관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습을 종교적 인간의 종교적 활동으로 보고, 학습과정에서 진리에 대한 이해, 느낌, 나눔, 음미

26.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360.

27.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399.

를 통해, 선택하고 책임 있는 수용에 이르는, 전인적인 활동이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²⁸ 그는 학습에 대하여, 전인에 의한, 전인의, 전인을 위한 학습이어야 한다는 야르스마의 생각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학습이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 곧 주체적인 활동이 되게 해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마음이 받아들이는 참된 학습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학습, 내면 학습이 기독교적 학습관이라고 말했다.²⁹

김용섭 교수는 기독교적 교수-학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요 교통(communication)인 동시에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자신을 결단”하는 활동으로 요약하였다.³⁰

3.3. 기독교 교육심리학

김용섭 교수는 미국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였고, 고신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교과를 강의하였으므로 일찍이 강의안을 교과서로 출간하였다. 그의 저서 『교육심리』는 비록 교회교육기관인 총회교육원의 교회교사양성총서로 출간되었지만, 이 책이 서술한 내용의 범위와 수준은 교회교사양성보다 사실상 교육대학에서 학교교사를 양성하려는 필요로 개발된 교육심리학 교과서였다.³¹

김용섭 교수는 교육심리학을 경험 기술적 과학(descriptive science)이면서 또한 당위성을 추구하는 규범학문(normative science)으로 간주하였다.³²

28.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415.

29.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421.

30.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425.

31. 김용섭, 『교육심리』 (부산: 고신출판사, 1988).

32. 김용섭, 『교육심리』, 13-14.

그는 교육심리학을 우선적으로 경험 기술적 과학으로 간주하였으므로, 기독교적 인간관과 교육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교육심리학 연구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육심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심리학 교과서가 다루는 주제들, 곧 교육심리학, 발달, 학습, 적응과 지도(상담심리), 교육평가 등의 세부 영역들에 따라, 현대의 연구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다른 연구논문들을 통해서도 교육심리학의 세부영역인 상담심리(적응과 지도) 영역의 주제들을 많이 다루었다. 예컨대 퍼스날리티의 본질(1977), 대인관계론(1984), 열등감(1986), 분노(1984), 퍼스날리티의 성숙과 종교(1994) 등의 주제 논문들이다.

김용섭 교수의 교육심리학 연구는 대부분 이론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교육심리학의 일반 주제를 논의하는 연구에 기독교적 내용과 적용을 부가하는 방식이었다. 『교육심리』에서는 인간의 종교성과 파울러(James Fowler)의 신앙발달이론을 추가하여 소개하였고,³³ “분노에 대한 연구”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성경의 분노에 대한 가르침을 부가하였으며,³⁴ “열등감과 적응”에서는 결론 부분의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적용 함의를 간단하게 부가하였다.³⁵ 또 “Gordon W.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의 성숙의 개념과 종교적 함의”에서는, 알포트가 종교를 인간성숙의 최고 차원으로 간주한 것을 의미 있게 보고 상세하게 소개하여 제시하면서도 종교개념의 신학적 한계를 지적하는 방법으로 느슨한 기독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³⁶

김용섭 교수는 미국의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자 야르스마의 교육심리학

을 깊이 연구해가면서 교육심리학의 규범학문적 특성, 특히 교육심리학의 출발과 구조에서의 기독교적 접근과 해석에 대한 관심을 더 발전시켰다. 김용섭 교수는 초기에 야르스마의 학습에 대한 분석의 논문에서, 야르스마가 성경적 관점의 인간론으로부터 마음의 학습, 능동적 학습, 전인적 학습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도, 야르스마는 학습이론에서 반주지주의적 경향성을 보였고, 학습의 합리성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비판하였다.³⁷

그러나 야르스마의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면서 김용섭 교수는 야르스마의 교육심리학의 많은 부분에 동의를 표하였고, 자신의 기독교교육사상의 기초로 삼았다. 김용섭 교수는 자신의 처음 생각처럼, 야르스마가 인간을 성경적 인간관에 따라 전인적인 퍼스날리티로 간주한 것이 맞다고 보았다. 특히 야르스마가 교육심리학 이론을 개혁주의 인간관으로부터 일관성 있게 전개하여 발달이론과 학습이론도 재구성한 사례로부터 기독교적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확인하였다. 물론 김용섭 교수는, 교수활동 초기에는 교육심리학자였으나, 이후 교육철학자로 연구 활동을 지속하였으므로, 경험과학적인 방법의 교육심리학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3.4. 한국 기독교교육역사

김용섭 교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Contours of a Scriptural approach to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내용의 제1부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 역사를 개관하였다. 비록 그가 자신의 논문 제1부의 제목을 “역사적 발전의 개관(a brief view of historical development)”이라 표현하였음에도, 한국교육역사는 그의 논문에서 200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대국

33. 김용섭, 『교육심리』, 65-66, 79-82.

34. 김용섭, “분노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 논문집』 11 (1984.7): 86-88.

35. 김용섭, “열등감과 적응,” 『고신대학 논문집』 14 (1986.10.): 182-183.

36. 김용섭, “Gordon W.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의 성숙의 개념과 종교적 함의,” 『고신대학교 논문집』 (1994.12.): 102-111.

37. 김용섭, “Cornelius Jaarsma에 있어서의 학습의 기본개념,” 『고신대학 논문집』 9 (1981.5.): 107-109.

가의 교육에서부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교육, 근대교육, 그리고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의 현대교육을 주요 특성들에 따라 모두 서술하였으므로, 사실상 전체적인 범위에서 한국교육의 역사를 상술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교육역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영문문헌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³⁸ 특히 오늘날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어렵지 않게 해외 문헌들을 불러 내어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도 못한 당시에, 그의 논문은 서구의 교육학자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육가들과 지식인들이, 그가 서술한 한국 문화와 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그리고 상세한 내용의 글을 접하여,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 기여를 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교육역사 연구 범위에서, 특히 근대의 기독교학교인 미션스쿨 연구자였다. 그는 “Mission School들이 한국교육의 현대화에 끼친 영향”(1988)이라는 논문에서, 당시대 조선사회의 세계관, 외교와 정치적 상황,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의 특성, 미션스쿨의 현황, 그리고 미션스쿨 교육내용을 서술한 이후, 미션스쿨이 근대 한국사회에 기독교복음의 전파와 함께, 자유교양교육을 통하여 근대 민주적 의식, 공공의 윤리와 준법정신, 민족주의적 의식, 여성의 인권의식을 일깨우는 일에 실제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⁹

김용섭 교수 자신이 11년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설립했던 미션스쿨 교사로 일한 경험에 비추어, 그리고 한국교육의 역사에 대한 연구자의 역량에 비추어, 한국 기독교학교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서 그의 특별한 기여가 더 기대되었지만, 교육역사에 대한 연구 시작의 시점이 비교적 늦었고, 우리나라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는 일반적으로 교회교육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므로, 많이 결실하지 못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정년퇴임이후, 그가 장로로 봉사해 온 제일영도교회의 역사를 기술하는 일에서 역사적 연구의 마지막 결실을 보였다.⁴⁰ 그가 집필한 『제일영도교회 100년사: 1896-1996』는 개별 교회 역사 연구의 역작으로서, 이후 개별 교회사 연구문헌들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그의 저서가 다룬 제일영도교회는 부산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교회였고, 고신교회의 중심 교회 중 하나였으므로, 그의 저서는 개별교회를 중심한 한국교회사 서술이 되었다.

4. 김용섭 교수의 기독교교육사상의 역사적 의의

김용섭 교수의 교육활동과 기독교교육사상의 역사적 의의는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의 역사적 의의와 맞물려 있다.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은 1946년 설립이후부터, 평양장로교신학교의 전통처럼, 신학 예과에서 주일학교교육을 위한 교양과목과 실천과목으로 가르쳐져왔다. 1961년부터 1963년까지는 종교교육과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1964년 이래로 독립학과가 유지되지 못하여 다시 신학 예과의 교양 및 실천 교과목으로 실행되었다. 고신대학교가 1969년 대학학력인정 교육기관이 되면서 다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김용섭 교수와 더불어 교육학이 대학의 교직과목으로 확립되었고, 1977년에는 김용섭 교수와 더불어 대학의 독립적인 학과로 재개설되었다.⁴¹ 한국교회 현실에서 기독교교육은 오랫동안 신학의 실천분야로 간주

38. YongSub, Kim, "Contours of a Scriptural Approach to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542-

543. 김용섭 교수가 당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구하였던 한국교육역사에 대한 미국 박사학위 논문은 9편에 불과하였고, 그 중 전체 역사를 다룬 것은 7편 정도였다.

39. 김용섭, "Mission School들이 한국교육의 현대화에 끼친 영향," 「고신대학 논문집」 16 (1988.10.): 164-168.

40. 김용섭, 『제일영도교회 100년사: 1896-1996』 (부산: 육일문화사, 1997).

41. 조성국,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의 역사적 발전양상(1946-2016)," 「고신신학」 18 (2016.9.8.):

되어왔으나,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유학경험으로부터 교육학을 신학에서 독립된 기독교학문으로서 이해했던 신학자 이근삼 교수의 주도로,⁴² 그리고 초기에 교육학자 김용섭 교수의 실제적인 작업으로,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는 우리나라에서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과로 확립되었다.

김용섭 교수의 교육활동과 기독교교육사상에서의 기여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김용섭 교수는 기독교교육과의 전공교육과 기독교교육학을, 고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개혁주의 기독교철학의 기초 위에 확립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는 신학자가 아니었으므로 신학 영역의 연구에서는 칼빈의 신학에 집중하였다. 그는 기독교 교육철학자였으므로 기독교세계관을 해명하는 네덜란드계 기독교철학(개혁철학)과, 기독교철학적 인간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1980년대 초부터 그는 네덜란드의 기독교철학자 도에베르트의 철학, 남아공화국의 기독교철학자 스투어커르의 철학, 그리고 그들의 철학을 해설하는 스피르, 칼스베이크, 딸야르트의 저서 내용을 교육과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둘째, 김용섭 교수는 네덜란드계 개혁주의 교육학 연구자로서, 우리나라에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의 바터링크와, 미국 칼빈대학의 야르스마의 교육이

론을 소개하는 일에 기여하였다. 영어문헌 해독에 한정된 조건에서 네덜란드 문헌이 대부분인 바터링크의 저서들 전체를 소개하기는 어려웠지만, 영어문헌들로 이루어진 야르스마의 교육이론은 명료하게 소개하고 깊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기독교교육학이 미국 신학대학에서 전래되어 교회교육신학의 성격을 가졌으나, 김용섭 교수는 개혁주의 기독교대학의 교육학 전통에 따라, 일반 교육학의 연구 전통처럼, 교육에 대한 본질적 논의와, 교육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비평적 논의를 통하여 기독교적 교육학을 확립하려 했던 정통 교육학자였다.

셋째, 김용섭 교수는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철학을 학문적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저서로 눈에 띄는 학자가 되었다. 그의 저서 『기독교교육철학』은 개혁주의 신학과 철학의 기초에서 일관성 있게, 교육의 본질, 교육적 인간론,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육과정, 교수학습의 전체 분야를 논의하였고,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철학이 일반 교육학 이론과 교회교육신학이론들과 어떤 구별성이 있는지 드러내었다. 이 저서는 그리스도인인 교육학자들과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이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의 독특성과 학문성을 접할 수 있는 주요 문헌이 되었다.

넷째, 김용섭 교수는 한국교육의 역사와 조건 안에서 개혁주의 교육학의 필요를 설득하고 개혁주의 교육학의 탁월성을 해설하는 전도자였다. 한국교육역사 전체에 대한 개관적 서술, 특히 미션스쿨의 역사에 대한 서술, 교회역사에 대한 서술에서, 기독교교육학이 우리나라 전체 역사와 사회 전반에 대한 시야를 갖도록 독려하였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혹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교육학이 이원론적 관점에서 교회사와 교회교육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는 기독교교육가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역사와 한국 사회로 시야를 확장하도록 요구하였다. 교육실천에서도 교회교육만 아니라, 가정

279-309.

42. 조성국.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의 역사적 발전양상(1946-2016)”. 『고신신학』 18, 2: 290-291. 이근삼 교수는 1964년 고신대학교의 기독교교육과 첫 번째 학과장으로 선임된 일이 있다. 기독교교육과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는 1964년 미국 고든대학교 샤플(Charles Schauffle) 교수를 초청하여 고려신학교 신학과에 기독교교육 집중특강을 열었다. 이후 이근삼 교수는 1969년 이후 기독교교육학의 초기 교수들인 김용섭, 그리고 1977년부터 김성수 교수가 개혁주의 교육학을 연구하고, 개혁주의 교육학을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의 교육학이 되게 하는 일을 지원하고 격려했다. 이근삼 교수의 노력으로 남아공화국 포츨스트룸대학교의 교수 박사학위 유학 프로그램이 열렸고, 그의 지원에 따라 먼저는 김용섭 교수, 이후에 김성수 교수가 차례로 박사과정에 유학하여 연구하였고, 두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교육학자가 되었다.

교육, 학교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였다.

물론 김용섭 교수의 학문적 연구에는 아쉬운 점들도 있다. 개혁신학 주제와 기독교철학 주제의 연구가 다양하지 않았고, 네덜란드어(와 아프리카스어) 문헌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야르스마 이후의 북미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자들의 문헌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고, 교회교육 실천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모든 주제에 대한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고신대학교의 첫 번째 기독교교육학자로서, 고신신학에 일치하는 개혁주의 교육학을 잘 소개하였고, 학문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철학을 해설하였고,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를 개혁주의 교육학과로 확립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기여는 충분히 인정 받아야 한다. 그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학문적 과제들은 그의 후속학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5. 나가면서

김용섭(1929-2021) 교수는 고신대학교의 첫 번째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자였다. 그는 고려신학대학의 첫 번째 교육학 교수로 교육학을 가르쳤고, 네덜란드계 개혁주의 기독교대학에서 개혁주의 교육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의 한국인 박사였다. 그는 고신대학교에 기독교교육과가 설치된 이후에는 전공교육과 학문연구에서 개혁주의 교육학을 확립하는 과제를 수행하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가 개혁주의 교육학 교육과 연구에 특화된 기관이 되는 일에 기여하였다. 그의 저서 『기독교교육철학』은 우리나라 교육학자가 네덜란드계 개혁주의 관점의 기독교교육철학을 논의한 의미 있는 저서

여서, 이후 기독교교육자들에게 개혁주의 교육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용섭 교수는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 기독교철학의 기초에서, 교육학적 인간론, 교육이론, 교육심리, 한국교육역사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는 개혁주의 교육학자인 네덜란드의 바터링크와, 특히 미국의 야르스마의 대표적인 연구자가 되어, 우리나라에 이 학자들의 교육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은 하나님 중심의 규범적 교육학이다. 개혁주의 교육학은 하나님의 권위와 역사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 간주한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교육과정에서 중심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교육은 인간 마음의 변화를 통한 전인적 발달과 성숙을 도모해야 하며, 문화적 사명의 범위와 과제를 다루어, 학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사회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로 그의 기독교교육사상은 요약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용섭. "Motivation in Learning." 「고려신학대학 논문집」 2 (1973.5): 78-98.
- 김용섭. "우리나라 기독교신자 대학생들의 교회생활 및 사회현실에서의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신학대학 논문집」 3 (1974.10): 86-142.
- 김용섭. "유아기의 가정교육." 「고신대학보」 (1975.2).
- 김용섭. "Personality의 본질: 그 기본개념과 형성을 중심으로." 「고려신학대학 논문집」 5 (1977.4): 41-67.
- 김용섭. "효의 의미와 기독교적 이해." 「고신대학보」 38 (1978.5.20).
- 김용섭. "Cornelius Jaarsma에 있어서의 학습의 기본개념." 「고신대학 논문집」 9 (1981.5): 93-110.

김용섭. "한국교육의 역사와 기독교교육의 미래." 『미스바』 6.

김용섭. "교육에 있어서의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고신대학 논문집』 10(1982.5): 111-138.

김용섭. "포츨스트룸대학의 도서관." 『미스바』 8.

김용섭. "이상적인 대학생상." 『학생생활연구지도』 1 (1983): 10-14.

김용섭.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와 훈계와 권위의 문제." 『향연』 1 (1984): 43-59.

김용섭. "분노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 논문집』 11 (1984.7): 71-90.

김용섭. "대인관계론." 『학생생활연구지도』 2 (1984): 5-16.

김용섭.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교육목적, 교사-학생관을 중심으로." 『고신대학 논문집』 13 (1985.7): 69-93.

김용섭. "Human Development (Cornelius Jaarsma)." 『교회문제연구』 4 (1985.12).

김용섭. "열등감과 적응." 『고신대학 논문집』 14 (1986.10): 163-184.

김용섭. "한국교회와 교육문제." 『교회문제연구』 5 (1986.9).

김용섭. "일반교육과 기독교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고신대학 논문집』 15 (1987.10): 263-297.

김용섭. "Mission School들이 한국교육의 현대화에 끼친 영향." 『고신대학 논문집』 16 (1988.10): 145-169.

김용섭. "교육의 기관과 장에 대한 고찰." 『미스바』 13 (1988): 52-78.

김용섭. 『교육심리』. 부산: 총회교육위원회, 1988.

김용섭. "인간의 심성을 회복하는 길." 『고신대학보』 (1990.2.28).

김용섭. "기독교대학과 교수들의 과제." 『고신대학 논문집』 (1990.12.): 253-260.

김용섭. "교회의 교육적 사명." 『파이데이아』 5 (1991).

김용섭.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부산: 고신대학교기독교교육연구소, 1992.

김용섭. "Cornelius Jaarsma의 교육사상." 『고신대학교 논문집』 (1993.12.): 37-74.

김용섭. "Gordon W.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의 성숙의 개념과 종교적 함의." 『고신대학교 논문집』 (1994.12.): 87-112.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김용섭. 『제일영도교회 100년사: 1896-1996』. 부산: 육일문화사, 1997.

김용섭. 성격심리학 강의안. 노트 자료.

조성국.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의 역사적 발전양상(1946-2016)." 『고신신학』 18 (2016): 279-309.

조성국. 『기독교세계관 형성을 위한 기독교학교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19.

Kim, YongSub. "Contours of a Scriptural Approach to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d.D. Thesis. Potchefstroom University, 1980.

Abstract

YongSub Kim's Life and His Reformational Philosophy of Christian Education

Prof. Dr. Joh, SongGuk
(Faculty of Christian Education)

YongSub Kim(1929-2021) was historically the first qualified education professor of Kosin University. He taught pedagogy as the first educationist in Korea Theological College (and Kosin University) from 1969 to 1994, and was the first Korean acquired a doctor degree in education from Dutch Reformed Christian University in 1980. He contributed to establishing the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of Kosin University, and to the department's becoming a Korean center of Reformational pedagogy. His book,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is such a significant leading study of the Christian education from the Reformational perspective, that many Korean educators could understand distinctions of Reformational pedagogy academically and systematically.

YongSub Kim's study focused on educational anthropology, theory of edu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and history of Korean education, on the basis of Reformational Christian philosophy. He introduced J. Waterink (Free University, Netherlands) and C. Jaarsma (Calvin College, USA) to Korean educators (both of them are Dutch Reformational educationists). He was a representative scholar in Korea on Jaarsma's education. Reformational pedagogy is a God-centered normative pedagogy. It is considered God's authority and works to be the real cornerstone of education. YongSub Kim contends that the Bible and the Holy Spirit should b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process of education, and that education aim to the change of human heart, his holistic development and maturity. Reformational education should deal with all the scope and tasks of cultural mandate, so that students may contribute to God's glory and the wellbeing of humanity.

Key words: YongSub Kim, Kosin University, Reformational Education,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Reformed Education, Potchefstroom University